

14. 믿음과 홀로 서기

❖ ‘구원’에 대하여—지난 주 못한 숙제=> 주여 구원하소서 (κύριε, σῶσόν με.)

I. 부활의 의미—세례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(14:1)

- 언어연구: 이[예수]는 세례요한이다.
 - Informative: 과학적 언어, 시비를 가림 (“아침에 비가 왔다”)
 - Expressive: 감정 전달. 시와 문학을 포함한 대부분의 의사소통 (내 맘에 비가 온다 => 우울하다?; 주는 반석이시며..=> 든든하다)
 - Directive/Performative: 어떤 행동을 유발하는 말/표현. “문 닫아라”=> 담배냄새 난다; “비 온다”=> 들어와라, 신발 들여놔라, ...
-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다 (ἠγέρθη ἀπὸ τῶν νεκρῶν) =>
 - 17:9 (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까지..)
 - 27:64 (무덤을 지키라.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소문이 날라...) => cf. 27:52
- 헤롯에 대한 평가 (마 14:5 => 2:16; 막 6:20). 근심하는 이유 또한 다르다 (양심의 가책 vs. 민란)
- 또 다른 잔치—5 병 2 어=> 생명을 줌 (14:13-21, 34-36)

II. 홀로 서기-- 왜 의심하느냐

- 세상살이—고난 (내 뜻과 상관없이 닥침)
- 바다 위를 걷다—“바다”로 상징되는 내 앞의 고난. 거기에 휘말리지 않고 의연하게 밟고 일어서다.
- 베드로가 빠진 이유—“믿음이 적다”(ὀλιγόπιστος); 의심하다(διστάζω)
 - ὀλιγόπιστε, εἰς τί ἐδίστασας;
 - 현대히브리신약: מִדְּמֵי הַיָּם עָלְתָּ לַיָּם (왜 이렇게 두 가지[branch]/의견 사이를 넘나드느냐?) => 두 개의 의견/가치관 사이에서 안절부절
 - מִדְּמֵי הַיָּם עָלְתָּ אֶתְּמֵי הַיָּם (왕상 18:21)
 - ^{KRV} 1 Kings 18:21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좃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좃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
 - 결국, “의심하다”=> 두 가지 믿음/가치관 사이에서 양다리 걸침. 신앙생활과 세상에서 실생활과의 차이 (필요/욕심에 따라, 가치관/복음을 바꿈)

생각해 보기

1. 내가 넘나드는 두 개의 옵션/가치관은?
2. 그래서 넘어진/빠진 적이 있는가?